

주성엔지니어링, 태양전지 수주 호조

한국투자증권, 유리기관 사용으로 폴리실리콘 대체 ... 적용범위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1월23일 주성엔지니어링의 목표주가를 9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민후식 애널리스트는 “주성엔지니어링은 한국철강으로부터 311억원 수준의 태양전지 제조장비를 수주했다”며 “전세계 태양전지 시장은 2005년 11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360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태양전지 부문은 향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주한 태양전지 장비는 유리기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2005년 이후 공급부족을 보이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e) 베이스 기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용범위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ALD(원자층증착장비) 시장성장과 태양전지 장비 수주로 2007년 매출액 및 주당 순이익(EPS) 성장률이 각각 55.3%, 115.1%에 달할 것”이라며 “2007년 국내 주요 장비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4>